

## 돼지 호박·속살 검은 고구마·노란 토마토... 이색농산물 농촌 살린다



소비자들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뜨린 속살이 검은 고구마, 네모난 오이, 노란 토마토 등 이색농산물이 각광을 받으면서 농산물 개방으로 위기에 빠진 농촌에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변동택(43·장성군 북이면 신평리)씨가 품종개발과 독특한 재배방식을 통해 개발한 '황운 호박'은 색깔도 천차만별이지만, 달마·돼지·오이 등 기상천외한 모양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50여종에 달하는 이들 '황운 호박'은 과일바구니에 넣어 3만~5만~10만원 단위로 판매된다. 보존기간은 5개월~1년이다.

번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천평의 비닐하우스에서 2천여만원의 소득이 기대된다"면서 "내년에는 재배 면적을 늘리고 호박모양을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 전남 뿐 아니라 전국판매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주(54·무안군 현경면 용정리)씨는 '육색 고구마'로 연간 3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김씨의 고구마

## 색깔·모양 기상천외...눈길 '확' 향암 효과 등 기능성...건강 '확'

는 속살이 붉은색에서부터 노란색·주황색·보라색·흰색·검은색에 이르기까지 컬러플하다.

특히 보라색은 항암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고, 흰색은 폐를 강화시키는 기능성 성분을 지녔다고 알려져 매출신장이 기대되고 있다.

광년기 장애 등에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가바(GABA)' 성분이 강화된 발아현미도 돌풍을 일으킬 조짐이다. 현미의 발아과정에서 온도·산소 등을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 2004년부터 특허기술을 이전받은 나주시 가바라이스영농조합(대표 김선동·40)은 지난해 2억 2천만원에 이어 올해 4억원의 소득이 예상된다.

지난해 일반쌀의 10배가 넘는 가격에 팔려 전국에 화제가 됐던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쇠뿔구리작목회(대표 고환석·43)의 적도미는 올해도 그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작목회는 900평에서 520kg을 생산, 1kg당 2만5천원에 판매했다. 올해는 1만평에서 5.5t을 생산, 경기도 성남농협에 전량 판매해 1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게 됐다.

이밖에도 일반 오이에 플라스틱 사각캡슐을 씌워 생산해낸 '사각오이',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한 '인큐베이터 오이', 감장·노랑토마토 등 아이디어 농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

## “金·鄭, 고건 원탁회의의 참여”

근태 동영

### “범여권 제 정파간 공감대 형성” 민간 CEO 동참...26일째 출범

국민통합신당 창당을 위한 고건 전 총리의 원탁회의 구성이 오는 26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 등 여당 내 제정파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정계개편을 둘러싸고 '선도 탈당론'이 제기되는 등 여권의 갈등이 과격으로 치달으면서 고건 전 총리의 원탁회의 구성은 더욱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국민통합신당의 창

당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5일 고건 전 총리의 핵심 측근인 김덕봉 전 총리실 공보수석에 따르면 "고건 전 총리가 그동안 열린우리당, 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한 결과, 대부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입장과 함께 원탁회의 구성 및 국민통합신당 창당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김덕봉 전 수석은 "오는 15일 국회가 폐회될 예정이므로 이르면 20일께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드러

날 것"이라며 "탈당이 전제조건이 아니므로 일단 정치권에서는 정동영 전 의장, 김근태 의장 등 여당내의 제정파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 일부, 정치권 원로 인사들이 원탁회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또한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 접촉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이며 각계 인사들도 원탁회의의 참여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건 전 총리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 "1차 원탁회의는 늦어도 26일께에 이뤄질 전망"이라며 "1차 회의에서 원탁회의의 범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2차, 3차 회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몸집을 불려나가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에서의 선도 탈당이 이뤄진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것이며 원탁회의의 구성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윤원중 전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신당 창당과 관련한 밀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신종식 의원은 "일단 원탁회의는 연말 안에, 늦어도 26~27일에는 출범하게 될 것이며 민주당도 정계개편 창구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신종식 의원은 "일단 원탁회의는 연말 안에, 늦어도 26~27일에는 출범하게 될 것이며 민주당도 정계개편 창구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연말 내에 성격과 레벨이 다른 복수의 원탁회의가 구성될 것으로 본다"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여당 내 통합신당과 내부의 제정파 의원들이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순서를 밟으면서 당내외에서 통합신당 창당 여론을 확산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욱기자 tuim@

## “내년 성장률 4.4%로 하락”

韓銀, 경제전망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4%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07년 경제전망'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상반기 4.0%, 하반기 4.7%, 연간 4.4%로 올해(5.0%)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11면>

이는 당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제시했던 성장률 전망치 4.6%보다는 낮은 수치이며 국내 주요 민간 연구소들이 제시한 4%대 초반보다는 높은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던 건설투자를 제외하고 민간소비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취업자수 증가세 둔화, 높은 가계채무부담 및 조세세 지출 증가 등으로 올해 4.2%에서 4.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해 외부로 운송되지 못한 컨테이너가 5일 광양항 부두에 가득 쌓여있다. 화물연대 파업 5일째인 이날까지 광양항에서는 컨테이너 4만7천여TEU가 처리되지 못했다. /광양=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화물연대 파업 중단...업무 복귀

운수법개정안 내년 2월 재논의

지난 1일부터 표준요금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던 화물연대가 5일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키로 했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인 표준요금제 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아 불씨는 여전히 잠복해있다.

김종인 화물연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동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교위 법안심사 소위가 표준요금제 도입과 주선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재논의키로 함에 따라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5일만에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는 일단락됐다. 화물연대 전남지부(지부장 김동국)는 5일 여수산업단지에서 집회를 가진 뒤 업무 복귀를 선언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부터 광양항 입구에 주차했던 화물차를 차고지로 이동시키고, 6일부터는 전원 업무에 복귀할 방침이다. /임주형기자 jhlim@ /광양=김춘호기자 chkim@

## 社告

### 韓銀 '겨울 경제캠프' 모집

광주·전남지역 중학생 대상...참가비 무료

광주일보사와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2007년 겨울방학 청소년 경제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전문 강사들의 화제이야기와 게임·영화·글

툰벨을 활용한 재미있는 경제 및 자산관리 노하우 등이 소개되고, 지역 산업현장체험도 실시됩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기념품도 제공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가대상 = 광주·전남지역 중학생
- 참가인원 = 매회 45명 내외(총 2회)
- 기간 = 1차 : 2007년 1월 3일(수)~5일(금) (부박 3일)  
2차 : 2007년 1월 9일(화)~11일(목) (부박 3일)
- 장소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 참가비 = 없음, 점심·간식 제공
- 신청기간 = 12월 8일(금)까지
- 신청방법 = 한은 광주전남본부 홈페이지(www.bok.or.kr/gwangju)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뒤 이메일(gwangju@bok.or.kr)이나 팩스(062-382-8164)로 제출
- 문의 = 한은 광주전남본부 기획홍보팀(062-601-1105,1109)

光州日報社·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이승철 광주공연**  
12월16일(토) 오후 7:30 광주연주채육관  
광주일보사 (062)220-0511, 1544-1216

## 우치국 여행시장

새로운 우치국 여행시장으로 따뜻한 마음씀 전하겠습니다.

1588-1300

우치국여행정보 1,800-1300-1300

우치국여행정보 1,800-1300-1300